

# 울산에서 왜군의 포로가 된 중국인

노성환\*

(e-mail: nosh1@hanmail.net)

---

## 目次

---

1. 머리말
  2. 울산에서 포로가 된 두 명의 사나이
  3. 쓰와노에서 활약한 도공 이랑자
  4. 또 한명의 포로 맹이관
  5. 마무리
- 

## 1. 머리말

지난 2010년 10월 어느 일간지는 울산에 사는 일본 연구자들에게 매우 쇼킹한 기사를 낸 적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에서 가장 큰 도예촌을 이루고 있는 야마구치현(山口縣) 하기 도자기(萩陶磁器)의 원조”는 ‘울산에서 잡혀간 도공 이랑자씨가 처음 만든 도자기’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기사는 울산 지역 대부분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을 통해 경쟁하듯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일본 역사연구가 김문길씨에 의해 제공된 것이었다. 논의를 위해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그는 『요시카기』라는 시마네현(島根縣) 남부 한 영주의 가문서에 의하면 임란 시 이곳의 영주 “사이토 이치로자에몬(齋藤市郎左衛門)이 이랑자라는 조선인(당인)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우에몬으로 고치고 아침저녁으로 특이한 도자기를 만들도록 했고, 이에 따라 이랑자는 외로움을 달래면서 조선 도자기

---

\*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역사민속학, 비교신화학

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이토가 울산에서 귀국할 때 여자 도공, 바느질과 길쌈하는 여인 15명도 함께 데리고 갔는데, 그 중 한사람이 이양자이며, 그녀는 당시 울산의 최고 기술자로서 시마네현 이와미(石見)에서 최초로 옹기그릇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전한 옹기와 도자기의 기술은 후예들이 에도(江戸) 중엽에 야마구치현 하기(萩)로 전해져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기가키(萩焼) 도자기로 발전했고 또 다른 후손들은 교토(京都) 시가현(滋賀縣) 시가라키 도자기(信樂燒)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도예촌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 것이었다.<sup>1)</sup>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울산출신 도공으로서 일본에서 활약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 이름이 이양자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종전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지금까지 시가라키 도자기의 비조(鼻祖)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으며, 또 하기 도자가 조선도공 이작광(李勺光)과 이경(李敬)에 의해, 이와미의 옹기는 18세기 후반 비젠(備前) 출신 도공이 코즈(江津)에서 기술을 전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부정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다. 일본에 잠혀간 여성 도공은 매우 드문 일인데, 울산 출신 이양자는 아리타(有田)의 백과선(百婆仙), 미가와치(三川内)의 고려할머니에 이어 여성 도공이 또 한명 추가되는 개가를 올리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그 설은 일본 도예사(陶藝史)를 새롭게 써야 하는 혁신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하기 도자기의 시조가 된 사람이 조선 여성 도공 이양자라는 견해는 단순히 울산이라는 지역성을 초월하여 일본 도예사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이러한 주장이 가지는 논리적 근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이양자가 울산 출신이며,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최고의 기술자이며, 하기 도자기의 비조이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양자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역사학자 한명기는 모 언론매체에서 이양자에 대해 야마구치현에 끌려간 도공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의 실체를 인정했고,<sup>2)</sup> 또 시마네현립대학(島根縣立大學) 교수 박용관(朴容寬)은 김문길과 달리 이양자는 이랑자인데, 그것은 본명이 아니며, 조

1) 2010년 10월 4일자 뉴시스, 한남일보 등 참조

2) JTBC 정관용 라이브(2014년 2월 25일) 정관용과 한명기의 인터뷰 내용 참조

선시대 한국에서는 독신남성을 ‘낭자’라고 부르는 것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sup>3)</sup> 즉, 그는 여성으로 보는 김문길과는 달리 남성으로 보고 있지만, 이랑자가 조선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처럼 이양자에 대한 견해가 연구자 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있다.

이에 필자는 울산에 사는 일본 연구자로서 이양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선 이양자가 과연 울산출신 여성 도공인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양자와 이랑자 중 어느 것인지, 또 그는 일본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2013년 7월 시마네현 요시카초(吉賀町)를 찾았다. 그 결과 그의 일족들이 문혀있는 묘소와 가마터 등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곳을 답사하는 한편, 가키노키무라(柿木村) 지역도서관의 도움으로 이양자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는 『길하기(吉賀記)』의 전문을 입수할 수 있었다.<sup>4)</sup> 이를 바탕으로 그것과 관련된 보조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함으로써 이양자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2. 울산에서 포로가 된 두 명의 사나이

김문길의 중요한 증거물로 들고 있는 문헌 『길하기』의 길하(요시카=吉賀)란 현재 시마네현 동부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다. 고대에는 8개의 뿔과 다리를 가진 괴이한 사슴이 나타나 사람을 괴롭히던 것을 에구마타로(江熊太郎)라는 영웅이 퇴치했다는 전설에서 가노아시군(鹿足郡)이라고 불리었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별칭인 요시카가 널리 사용되었다. 현재는 무이카이치초(六日市町)와 가키노키무라(柿木村)가 요시카초라는 이름으로 합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길하기」란 요시카 지역의 기록물이란 뜻이다. 이 문헌은 이 지역의 사적과 명승지 등을 기록한 지방지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의 유일한 역사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오자키 타자에몬(尾崎太左衛門: 1740-1812)이다. 그는 1740년(元文5) 히로이시(廣石)의 시시야시키(獅子屋敷)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고, 서예와 수학에도 뛰어나 지역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다. 그리고 23세 때 약관의 나이로 아리메시(有飯)의 촌장(庄屋)이 되었다. 이후 1792년(寛政

3) 朴容寬(2004) 「石見燒のルーツを探る」 『リポート21 <21世紀.地球講座から>』 島根県立大学, p.212

4) 필자의 답사는 2013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도움을 받은 가키노키무라 도서관 관계자 및 야마구치현(山口縣) 하기시(萩市) 거주 오카 히로시(岡弘) 씨 등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4)에는 후쿠가와(福川)의 촌장이 되었고, 1799년(寬政11)에는 타마루(田丸)의 촌장이 되었다. 그 후 1805년 은퇴할 때 까지 약 43년간 촌장직을 수행했다. 『길하기』는 그가 타마루에서 촌장을 하고 있었을 때 쓴 것이다. 1812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길하기』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1821년(文政4)에 와타나베 겐호(渡辺源宝)에 의해 보완되어 집필되었다.

와타나베 겐호는 와타나베 류자에몬(渡辺龍左衛門)이라고도 하는데, 무이카이치(六日市) 신궁신사(新宮神社)의 궁사(宮司)로서 스에오카 아와지노부히데(末岡淡路信英)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12세가 되던 해 츠와노번사(津和野藩士) 와타나베 키우에몬(渡辺喜右衛門)의 양자가 되어 16세 때부터 번사(藩士)로서 요시카의 시모료(下領)와 요코다(横田), 아오하라(青原) 등의 대관(代官)을 역임했다. 『길하기』의 보필은 그가 아오하라에 있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다.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복각판 『길하기』는 전 나누카이치무라(七日市村) 조역(助役) 스나하라 이와키치(砂原岩吉)씨가 베껴 쓴 것을 1976년에 이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 무이카이치초(六日市町) 문화재심의회에 의해 출판되어 있다. 그리고 1986년 가키노키무라가 『시목촌지(柿木村誌)』에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다음은 『시목촌지』에 수록된 것을 소개한 것이다.

보력(宝曆) 3년 봄 호슈(防州) 도쿠야마(徳山)의 한 외곽지를 행각(行脚)하는 부인이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예기치 못한 풍병(風病)을 얻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에 집 주인이 깜짝 놀라 관가에 알렸다. 관가는 이에 의사를 보내어 돌보게 하였더니 3개월이 지나자 완쾌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행각 준비를 하였다. 이에 주인이 말하기를 “여자의 몸으로 특히 노인이 여러 지방을 행각하는 데는 어떤 사연(宿願)이 있는 것입니까?”라 했다. 그러자 노파는 부끄러운 안색을 하고는 “이같이 보살피주셔서 무어라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시 반슈(播州) 아코(赤穂)의 전성주 아사노 다쿠미노가미(淺野内匠頭:1667-1701)의 가신 다케바야시 다다시치(武林唯七)라는 자의 딸입니다. 저의 주군이 지난 원록연중(元祿年中:1688-1703)에 기라코즈케노스케(吉良上野介:1641-1703)에게 술회(述懷)하는 일이 있어서 전중(殿中:장군이 머무는 성)에서 해를 가하였지만 우에노스케가 운이 좋아 약간 상처만 입었을 뿐 원한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중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로 주군은 원통하게도 할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영지는 몰수되고 가신들은 남김없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家老)였던 오이시 구라노스케(大石内藏助: 1659-1703)가 망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충신의 자들과 서약하여 1692년(元祿15) 겨울 에도에서 기라의 저택을 공격하여 드디어 존의를 달성하였고, 공적인 재판을 받아 할복한 47명

중의 한명입니다. 어머니는 다쿠노가미가 서거한 후 슬피한 나머지 병사했습니다. 저는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살았으나 지금은 부모가 모두 죽고 없어 마침내 비구니(尼法師)가 되어 선군과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유석심(流石心)의 더러움에 모습을 바꾸지 못하고 하물며 이대로 여러 지역의 신사불각을 순례하며 절하고 에도(江戸)를 떠나 묘에 물을 올리려는 생각으로 행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선조는 당토(唐土) 무림(武林)의 적손(嫡孫)으로 문자를 바꾸어 읽어 성씨를 다케바야시(武林)라 하였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전의 1597년(慶長2)에 히데요시(秀吉)가 조선정벌을 나섰을 때 아사노 사쿄다타이후유키나가(淺野左京大夫幸長)가 조선의 울산에서 농성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명에서 조선군을 돕기 위해 대군을 일으켜 병부상서형진(兵部尙書刑珍)이라는 자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보내어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군이 여러 번 이겼지만, 명군 또한 여러 번 유격을 하였습니다. 그 때 무림강(武林降)이라는 자가 선봉에서 싸웠으나, 유키나가의 공신 가메다 오스미(龜田大隅)가 복병으로 명군 수만을 물리쳤습니다. 그 중에서 오카노 야우에몬(岡野彌右衛門)이 무림강과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그를 생포하여 울산으로 퇴각하였습니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용기와 지혜로써 적을 물리치고, 모든 군대가 귀국할 때 무림강은 유키나가의 손에 체포되어 오카노에게 맡겨졌고, 또 오카노는 유키나에게 구명 요청을 하여 공의(公儀)로부터 조선에서 잡은 포로를 살려준다는 허락을 받아 무림강을 맡았습니다. 그 후 유키나가의 아우 우네메노쇼(采女正)는 5만석의 분지(分地)가 되었고, 오카노는 쇼칸(將監)으로 개명하여 가로직(家老職)에 올랐습니다. 이에 무림강을 우네메노쇼가 가엽게 여겨 차노마(茶の間)의 하녀(女房)와 결혼하게 하였고, 그의 이름도 다케바야시 다다우에몬(武林唯右衛門)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 며느리는 다쿠노가미의 유모를 했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다다시치와 다쿠노가미는 짓형제로 한층 더 주군에 대한 생각이 깊고, 근습(近習)으로서 섬겼는데, 주군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여 이루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려 의사(義士)의 무리에 들어가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행말이 흐르는 물과 같아 덧없이 애절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상에서 말하는 경장연중(慶長年中:1596-1614)에 무림강의 일족 중 이랑자라는 자가 세키슈(石州) 산본마츠(三本松)의 성주 요시미 모토요리(吉見元頼)의 휘하 무사인 사이토 이치자에몬(齊藤市左衛門)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 역시 귀국 시에 함께 포로(召質)가 되어 산본마츠의 인근 마을 스기가토오게(杉ヶ峠)라는 곳에서 살면서 생명의 부지가 허락되어 조석(朝夕)으로 위로 삼아 그릇을 구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며 다다우에몬이 아버지에게 항상 말을 하곤 했습니다. 때마침 내가 산본마

츠를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나 혹시나 (李郎子의) 자손이라도 있으면 만날 생각으로 안내인을 고용하여 스기गत오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내(城下)에서 1리 정도 아홉 구비 비탈의 산길을 올라 깊은 산으로 들어가니 겨우 도진야(唐人屋)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인가가 없고, 원숭이 소리, 물소리만 심하게 나서 아연실색하여 서 있었습니다. 때마침 더부룩한 수염을 기른 노인을 만나 옛날 이곳에 당인이 살았던 흔적을 알고 있는지, 또 그들의 자손은 없는지를 물었지만, 그 노인은 눈을 부라리며 이상한 것을 묻는다며, 옛날 요시미라는 영주가 있었을 때 포로로 잡혀온 당인을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도진야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훗날 마타자에몬(又左衛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조석으로 위로삼아 그릇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손도 없고, 일대에서 대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묘는 없는가’ 하고 묻자 ‘이쪽으로’ 하며 안내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릇(파편)이 쌓인 논두렁 같이 생긴 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찾는 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잡초들만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보았더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물을 바치고 합장하여 명복을 빌고 산속이었기 때문에 그 노인과 헤어져 산본마츠에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정말 세상의 성쇠시비(盛衰是非)는 없다. 당토의 무림강 씨족이 일본에게 포로가 되어 수난을 당하고, 1대에서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만약 다다우에몬이 살아서 보았다면 얼마나 통절하였을까? 이 같은 어려운 고충을 떠올리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솟구쳐 몸을 떨면서 울었다. 주인도 예기치 못한 것을 묻고 이러한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버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로 적어두었다가 모리번(毛利藩)에 제출했다. 그러자 번에서는 부인(附人) 두 명과 은자(銀子)를 내려 에도(江戸)까지 무사히 보냈다고 한다. 그것은 「나무가지 끝에 꽃이 피고, 원래 이름이 나타나는 곳」과 같다. 이 이야기는 도쿠야마의 상객(商客), 가나야가나우에몬(金屋金右衛門)의 이야기를 그대로 토진야의 구적(旧跡)에 부기(附記)해둔다.<sup>5)</sup>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울산에서 잡혀간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 한 사람은 무림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랑자였다. 이랑자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전자는 오카노 야우에몬에게, 후자는 사이토 이치자에몬에게 각각 생포되었다. 무림강은 선봉에 서서 일본군과 싸웠다고 하고, 또 그의 후손인 다케바야시 다다시치가 반슈 아코의 사무라이가 된 것으로 보아 본시 무사계급의 출신이었던 것 같다. 그 반면 이랑자는 일본에서 아침 저녁으로 위로삼아 그릇을 구우며 살았다는 것에서 보듯이 그의 직업은 원래 도공이었던 것 같다. 이 두 사람은 일족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서로 가깝게 지냈던 같은 고향 사

5) 柿木村誌編纂委員會(1986) 『柿木村誌(1)』 柿木村 pp.343-345

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당시 조선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매우 드문 이름이다. 무림강의 ‘무씨’는 한국에는 없으며, 이랑자의 ‘랑자’ 또한 양반계층의 여성을 일컫는 말과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랑자의 ‘랑(郎)’은 김문길이 말하는 것처럼 이양자의 ‘양’과 다르며, 또 그 의미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젊은 남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은 위의 기록만으로 이양자가 울산 출신 여성 도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을 수 없다.

### 3. 쯔와노에서 활약한 도공 이랑자

이랑자에 관한 『길하기』의 기사 가운데 「이랑자라는 당인이 일본식 이름 마타우에몬으로 개명하고 조석으로 위로삼아 ‘이상한 그릇’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일본식 이름을 마타우에몬으로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다. 즉, 이 이름은 남자에게 사용되는 것이지 결코 여성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이랑자는 여성 도공이 아니라 남성 도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정착한 곳은 야마구치현이 아니라 시마네현이었다.

이랑자가 살았던 요시카 사람들은 그가 생산한 사기그릇을 도진야키(唐人燒)라 했고, 그가 살았던 곳을 도진야(唐人屋)라 하였음은 위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쯔와노와 도진야를 연결하는 터널이 건설되어있는데, 이 터널의 이름을 ‘도진야 터널’이라 하고 있다. 이처럼 도진야는 아직도 지역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랑자가 살았던 지역민들은 상대가 영문 모를 말을 할 때, 이를 “당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하곤 한다. 그 기원을 임란 이후 이곳으로 끌려온 포로들이 지역민들에게 말을 할 때 지역민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지역민과 외국인 포로들이 처음에는 서로 언어를 소통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랑자는 일본인과 대화하며 그릇을 굽고 판매하였던 것이다. 그가 그릇을 생산하던 가마터에 요시카초(吉賀町)의 교육위원회가 세운 안내판이 서 있는데, 그것에는 가마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었다.

당인 가마(唐人燒窯)는 서일본에서 초기의 가마로 유리질의 유약을 바른 도자기 즉, 도기를 구운 가마로서는 시마네현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들 중의 하나이다. 별명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한 문록(文祿: 1592년, 임진왜란), 경장(慶長:1597년, 정유재란)의 역(役)으로 쓰와노(津和野) 성주 요시미 히로나가(吉見廣長)을 따라 종군하여 조선으로 건너간 후쿠가와(福川) 산노세(三ノ瀬) 성주인 사이토 이치자에몬이 울산전투 후 귀국 시 도공 이랑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랑자를 그대로 자신이 맡아서 도기에 적합한 연한 황토(淺黃土)가 있는 이곳 스키가토오케(杉ヶ峠)에 살게 하여 가마를 지었다. 이것이 당인 가마의 시작이다.

1981년(昭和56)에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요체(窯體)는 5실 전후의 각방이 있었고, 급하게 경사가 진 곳에 지은 비교적 소규모의 「계단상연방식등요(階段狀連房式登窯)」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굽다가 파손된 물건을 버리는 곳에서 접시, 밥그릇 등의 파편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이 지방의 일용품의 공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약 300미터 내려가면 이랑자의 묘가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이랑자가 작업을 하던 가마터를 1981년 가키노키무라 교육위원회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그의 가마는 매우 가파른 곳에다 지어진 소규모의 등요(登窯)이었음이 확인되었고, 또 그가 생산한 그릇들은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팀의 보고에 따르면 차 사발과 굽 달린 화분의 파편들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일상잡기 뿐만 아니라 차도구들도 생산했으며, 또 유약에는 흰색의 짙을 태운 채와 황록색의 흙 재를 사용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했다.<sup>6)</sup> 이랑자가 이곳에다 등요를 짓고, 장작불을 떼어 고온에서 생산한 그릇의 제조법은 그 이전까지 일본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그릇 또한 획기적인 물건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이 신기하였는지 『길하기』에 “이랑자가 하루 종일 ‘이상한 그릇’을 만든다”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위의 기록 『길하기』에 의하면 다케바야시 다다시치의 자손이 이랑자의 자손을 찾아보았지만, 자손은 없고, 논두렁과 같은 초라한 무덤만이 남아있고, 또 1대에서 대가 끊어진 것을 노파의 조부가 알았다면 마음 아파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에서 보듯이 그의 대는 일찍 끊어졌던 것 같다.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묘가 위의 안내판의 설명문에서 보듯이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가마터에서 큰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좌측에 「이랑자의 묘」라는 안내표시

6) 柿木村誌編纂委員会(1986), 앞의 책 p.338

가 가리키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의 묘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의 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묘가 함께 있다. 그 묘역에는 담장을 둘러쳐져 있는데, 중앙에 단을 쌓고 그 위에 이랑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묘비가 우뚝 서 있다. 『길하기』에는 표시가 없었고, 잡초만 우거져 있다고 했지만, 현재는 누군가에 의해 단장되고 묘비도 새롭게 세워져 있다. 묘비의 정면에는 「귀일구아선정문영위(歸一久我禪定門靈位)」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좌우 옆면에는 작은 글씨로 「寬文二年(1661) 六月八日」, 「季郎子(享)」로 되어 있다. 이랑자의 ‘李’를 ‘季’로 착각한 것 같고, ‘(享)’은 ‘墓’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같이 본다면 이 묘비는 이랑자의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묘비를 두고 가키노키무라 교육위원회는 처음에는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다. 그 단적인 예로 이랑자의 가마터를 발굴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이 묘를 ‘현 시점(1982년) 이랑자의 묘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진화야정사(津和野町史)』(1권)에서 이 부분을 집필한 오키모토 쓰네요시(沖本常吉)는 도공이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 목공(木地師)의 묘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는 내용까지 소개했다.<sup>7)</sup> 즉, 그의 묘지는 어디까지나 구전일 뿐 역사적으로 실증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안내판에도 친절하게 “여기서 약 300미터 내려가면 이랑자의 묘가 있다”고 설명할 만큼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는 이들도 묘비에 적힌 계랑자(季郎子)를 이랑자로 인정한 셈이다.

한편 이랑자의 묘비가 세워진 단 아래 나란히 두 개의 묘비가 서 있는데, 우측 묘의 비에는 정면에는 ‘공(空)’이라고 글자 밑에 「도달선정문영위(道達禪定門靈位)」 그리고 옆면에는 「寶永三年(1706) 十二月二十九日」라고 새겨져 있고, 또 그 옆 묘비의 정면에는 「귀진정원신녀영위(歸眞貞門信女靈位)」, 그리고 옆면에는 「寶永五年(1708) 二月二十七日」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시목촌지』 편집위원회가 펴낸 『시목촌지』에서는 이랑자가 이 지역에 정착하여 일본여성과 결혼하였으나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받아들였고, 양자 또한 도공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묘비의 「도달(道達)」이라는 이름은 양자의 이름이며, 그리고 또 하나의 묘비의 이름인 「정원(貞圓)」은 양자의 아내일 것으로 추정했다.<sup>8)</sup> 그렇다면 이랑자의 계명은 「구아(久我)」이며, 그의 양자의 계명은 「도달」, 양자 아내의 계명은 「정원」이며, 이랑자는 1661년, 도달은 1706년, 정원은 1708년에 각각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케바야시 다다시치의 딸인 노파가 이랑자의 후손을 만나기 위해 이 지역

7) 柿木村教育委員会(1982) 『唐人焼窯跡発掘調査概報 -島根県鹿足郡柿木村-』 p.30

8) 柿木村誌編纂委員会(1986), 앞의 책 p.339

을 방문한 연대를 원래 오자키 타자에몬이 기록할 때에는 「보력 3년」이 아닌 「보영(寶永) 3년」으로 되어있었다. 이를 훗날 보완하여 집필한 와타나베 겐호는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케바야시가 아코의 낭인 집단에 들어가 주군의 원수를 갚고 활복 자결하였을 때의 나이가 32세였고, 그 해가 1703년이다. 그런데 그의 딸이 노파가 되어 이랑자를 찾았다는 「보영3년」은 1706년이므로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케바야시가 일찍 결혼하여 25세 때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1706년이면 겨우 11세이다. 『길하기』에는 그녀를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보력 3년(1703)」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그녀의 나이가 대략 58세 전후가 되어 노파라는 말과도 합치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는지 위에서 본 가키노키무라가 펴낸 『시목춘지』에서는 이를 아예 보력 3년이라고 정정하여 기술해놓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위의 묘비에서도 발견된다. 보영 3년(1706)은 이랑자의 양자와 그 부인이 모두 살아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찾아보아도 자손들이 없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보력 3년(1703)이라면 정원이 죽은 지 45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랑자의 후손을 찾았을 때 자손도 없고 잡초가 무성한 초라한 무덤만 있었다는 노파의 말과도 일치가 된다.

이랑자가 울산 출신 여성도공이라는 설의 진원지인 김문길이 울산의 어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남성일 것이라는 편견들이 많지만, 사실상 도공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랑자’는 이름 없는 하층민일 뿐인 여자 도공에게 일본인이 붙여준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 적이 있다.<sup>9)</sup> 그가 이랑자를 이랑자로 수정하고,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닌 여자 도공에게 붙여준 이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서두에서 소개한 일간지와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랑자가 여성이라고 보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랑자는 이양자가 아니고, 그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며, 정유재란 때 울산에서 왜군에게 잡혀간 사람이었다. 그는 본시 도공이었기 때문에 그 자질을 살려 쓰와노의 인근 가키노키무라에서 등요를 짓고 그릇을 구우며 살다가 1661년경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는 현지여성과 결혼하였으나 자식이 없어서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받아들였고, 그 양자에게도 자식이 없었는지 일찍이 대가 끊어졌다. 이같이 일본에서 이랑자의 삶과 가계는 일찍 끝나 버렸다.

9) 경상일보, 2010년 10월 5일자

## 4. 또 한명의 포로 맹이관

그렇다면 김문길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랑자는 울산 출신의 조선인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길하기』는 중요한 단서를 남기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이랑자는 무림강의 일족이며, 무림강은 당토(唐土) 출신이라고 하고, 또 이랑자를 당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중국인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당인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 외국을 당토(唐土)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당토, 당인이라고 한 것만으로 이랑자를 중국인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규슈(九州)와 시코쿠(四國)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도진마치(唐人町)는 중국인들이 사는 마을이 아닌 조선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얼마든지 조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외국인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므로 이랑자의 출신지를 생각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길하』에서 제시된 단서는 이랑자가 다케바야시 다다시치의 선조 무림강의 일족이라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다다시치는 일본인이면 누구다 다 알고 있는 『충신장(忠信藏)』이라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47인 사무라이 중 한명이다. 『충신장』이란 죠류리(淨瑠璃=文樂)라는 전통 인형극 및 가부키(歌舞伎)라는 전통 연극 무대에 자주 올려지는 『가명본충신장(假名手本忠臣藏)』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 연극은 에도(江戸) 중기 때 발생한 겐로쿠 아코 사건(元祿赤穂事件)을 테마로 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길하기』에서도 잠시 언급되어있지만,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1701년(元祿14) 4월 21일 막부의 쇼군이 거주하는 에도성(江戸城) 마츠노오오로카(松之大廊下)라는 복도에서 아코번(赤穂藩) 영주 아사노 나가노리(淺野長矩:1667-1701)<sup>10)</sup>가 기라 요시히사(吉良義央=上野介)<sup>11)</sup>에게 칼을 뽑아 상처를 입혔다. 천황이 막부에 파견한 칙사의 접대를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가 된 아사노는 즉시 할복처분

10) 반슈 아코번(播磨赤穂藩)의 제 3대 번주. 관위는 종3위하(從五位下) 타쿠노가미(内匠頭). 관명에 따라 아사노타쿠미노가미(淺野内匠頭)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11) 에도전기의 무사. 에도출신. 어릴 때 이름은 사부로(三郎). 통칭은 左近. 從四位上左近衛權少將, 코즈케노스케(上野介). 흔히 키라노코즈케노스케(吉良上野介)라고도 한다. 겐로쿠 아코 사건의 당사자. 『충신장』에서는 악역으로 나오지만 자신의 영지 三河國幡豆郡吉良에서는 새로운 농지개발에 힘써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다 준 명군으로 손꼽힌다. 그의 가문은 조부 義弥 이래 고가(高家)로서 막부의 의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에도성에서 칙사접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아사노 나가노리에 의해 부상을 입고 은거를 했으나 나가노리의 가신이었던 오이시를 비롯한 낭인들의 습격을 받아 1702년 6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을 당해 목숨을 잃고, 피해자가 된 기라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 결과에 불복하는 아코번의 가로(家老) 오이시 요시오(大石良雄=内藏助:1659-1703)를 비롯한 구 아코번의 사무라이 47명이 우여곡절 끝에 1703년(元祿15) 1월 30일 새벽 기라의 저택에 쳐들어가 복수를 감행하여 성공을 거둔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서술하면 이들이 기라의 저택을 기습하였을 때 미처 방비를 못한 기라의 호위무사들도 맞서 싸웠지만, 기라 자신은 숲 창고에 몸을 숨겼다. 아코의 낭인들은 기라를 찾았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코의 낭인들이 부엌 옆 숲 창고에서 인기척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접시와 숟 등을 던지면서 2명의 기라 부하들이 공격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밑으로 엎드리자 창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이때다 싶어 창으로 찌르자 기라가 칼을 빼어 저항하였다. 그 순간을 다케바야시 다다시치가 그의 목을 베었다는 것이다.

그 후 47명의 무사들은 막부로부터 할복자결의 처분을 받아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도 미화가 되어, 이들은 주군을 위해 복수극을 벌인 「충의(忠義)의 의사(義士)」로서 일본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길하기』에 의하면 무림강의 후손 다다시치의 모친이 아코번의 영주 아사노 나가노리의 유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젓형제라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사이는 누구보다도 각별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다시치는 기라의 목을 직접 베 장본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자료가 여기저기서 산견된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다시치의 선조인 무림강의 출신지가 밝혀지면 그와 같은 고향인 이랑자의 출신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케바야시 다다시치의 본명은 다케바야시 다카시게(武林隆重: 1672-1703)이다. 그는 에도시대(江戸時代) 전기 아코번의 무사이었고, 통칭으로 다다시치라 불렸다. 그의 부친은 와타나베 고토시게(渡辺式重)이고, 모친은 기타가와 쿠베이(北川久兵衛)의 딸이었다. 고토시게의 부친은 와타나베 고토노리(渡辺士式: ?-1657)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치안(治庵)이라 불려졌다.

가니 히로아키(可兒弘明)의 연구에 따르면 치안의 11대손 야마다 카즈히코(山田一彦)씨가 치안을 시조로 하는 「선조유서서(先祖由緒書)」를 소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원조무림치암사식(元祖武林治庵士式), 초명이관(初名二官)” “본국중화생항주무림군(本國中華生國杭州武林郡)” “추국공맹가육십일세손(鄒國公孟軻六十一世之孫)”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한다.<sup>12)</sup>

12) 可兒弘明(2007) 「研究ノート 孟二寛とその後裔 <補遺>」 『史学(75卷-2,3号)』 慶応義塾

이 말대로라면 그의 시조 무림치암사식(武林治庵士式)은 원래 이름이 이관(二官)인데, 본국이 중국 항주 무림군 출신이며, 추국공(鄒國公) 맹가(孟軻)의 6세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본명은 와타나베 고토노리가 아니라 맹이관(孟二官)이다. 그리고 무림강이란 그의 고향 이름을 딴 별칭이었다. 또 그는 명나라의 유격부관(遊擊副官)으로 조선으로 파견된 인물이기도 했다.<sup>13)</sup>

이러한 그가 어떻게 일본에 살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관심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무로쿠 소(室鳩巢:1658-1734)<sup>14)</sup>였다. 그는 다다시치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당시 주자학자이다. 그가 1703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적수의인록(赤穂義人錄)』(卷下)에는 “다카시게의 선조는 조선인이며, 성씨는 불명이며, 그가 있었던 곳이 무림(武林)이었다고 한다. 문록연간(文祿年間) 중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이 있었던 일이다. (그 때) 다카시게의 선조가 일본군에 포로가 된 것이다. 그 자손들은 드디어 일본인이 되었으며, 비로소 선조가 태어난 곳을 자신들의 성씨를 삼았다”<sup>15)</sup>고 하였다가, 그 이듬해 1704년에 낸 그의 저서 『구소소설(鳩巢小説)』(卷下)에서는 “조선에 원군으로 파견된 명나라 항주 무림 출신 맹이관(孟二寬)이며, 그의 향리 이름을 따서 일본에서는 다케바야시 치안(武林治庵)이라고 칭하고 의술로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정정하여 펴냈다.<sup>16)</sup>

이러한 행위에서 보듯이 아마도 그는 처음에는 맹이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다. 단순히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때 조선에서 포로가 된 자라는 것만으로 당사자를 조선인이라고 단정했고, 또 다다시치의 가계도 파악하지 못해 성씨와 이름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 해에는 그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였는지 다다시치를 중국인 맹이관의 후손이라고 정정하여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이것이 거의 정설화되었다. 그 예로 오카다 키요시(岡田清)가 『엄도도회(嚴島圖繪)』에서 쓴 글에서도 “고토노리는 맹자의 후예로서 중국(漢土)

大学, p.144

13) 可児弘明(2007) 「孟二寬研究の現状と問題点」 『中央義士会会報』 中央義士会, p.3

14) 에도 출신 주자학자. 15세 때 카가번(加賀藩)의 가신이 되었다. 그 후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키노시타 준안(木下順庵)의 문하에서 수학, 그 후 동문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천거로 막부의 유관(儒官)이 되어 합리적인 인재등용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등 쇼군 요시무네(吉宗)의 개혁정치를 보좌하였고, 이어서 이에시게(家重)의 시강(侍講)이 되는 등 권력의 측근에 있었다. 아코사건을 보고 지은 그의 저서 『義人錄』은 주군과 신하의 충과 의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므로 당연히 47명의 사무라이들은 이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칭송되었다.

15) 石井紫郎校注(1977) 「赤穂義人錄(下)」 『近世武家思想』, 岩波書店, p.330

16) 近藤瓶城編(1985) 『続史籍集覽(6)』 所收 「鳩巢小説」 臨川書店, 可児弘明(2006) 「研究ノート 孟二寬とその後裔」 『史学(74卷-4号)』 慶応義塾大学, p.101에서 재인용

항주 무림군의 사람이다. 명나라 말기 우리 일본에 귀화하여 다케바야시 치안(武林治庵)이라 칭하였다”고 하였고,<sup>17)</sup> 또 아코의 47명 사무라이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사전에서도 “히데요시의 정명(征明) 이후 명나라 사람 맹이관이 귀화하여 일본인과 결혼하여, 그 자식은 완전한 일본인이 되었다. 자손 중에 와타나베 헤우에몬(渡部平右衛門)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처음으로 아코번의 번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다케바야시 다다시치는 그 자의 아들이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이상에서 보듯이 다다시치의 조부 맹이관은 중국 항주 무림군 출신으로 임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 병사였고, 그는 조선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왜군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에 정착하여 때로는 다케바야시 혹은 와타나베 고토노리라 하였고, 통칭으로는 치안(治庵)이라고도 했던 자이다. 『길하기』에 의하면 그가 이랑자와 함께 울산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이관의 도일에 대해 지금까지 몇 가지 견해들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일본표류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포로설이다.

전자는 그의 묘비와 「선조유서서」에 적힌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그의 묘가 히로시마(廣島)의 남상원(南湘院)이라는 사찰에 있는데, 그 묘비의 정면에는 “치암현도대덕(治庵玄道大德), 각옹신독거사(覺翁信篤居士)”, 측면에 “치안(治庵)의 이름은 사성(士成=士式의 오기?)인데, 명나라 항주 무림군 출신으로 나가토(長門)에 표류하여 맹이관이라 했다(治庵名士成明杭州武林郡人漂流仕長門國稱孟二官)”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선조유서서(先祖由緒書)」에도 나타나 있다. 즉, 관영연간(寬永年間: 1624-1643)에 나가토에 표류하여 한 때 나가토번에서 살다가 1643년(寬永20)에 아오키 시게카네(靑木重兼)의 알선으로 히로시마번(廣島藩)의 사무라이가 된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가 처음으로 일본에 표류한 곳이 나가토라 했다. 중국의 남쪽 항주에서 이곳으로 표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설은 그가 전쟁포로였다는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남원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울산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설이다. 남원설은 역사학자 나이토 슌포(內藤騷輔)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그는 『부록(譜錄)』

17) 可兒弘明(2007), 앞의 논문 p.150에서 재인용

18) 『増訂赤穂義士事典』(新人物往來社.1983年) p.249, 可兒弘明의 앞의 논문 pp.97-98에서 재인용

19) 可兒弘明(2007), 앞의 논문 p.145

과 『추번벌열록(萩藩閥閥録)』과 같은 하기번의 기록을 근거로 맹이관을 1597년 8월 남원성 전투에서 전라도병마절도사의 아들 이성현(李聖賢: 당시 7세)의 호위무사였는데,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현 그리고 한명의 종자와 함께 성을 빠져나왔으나 모리(毛利)의 가신 아소누마 모토히데(阿曾沼元 秀: ?-1597)의 휘하 부대에 체포되어 나가토로 송치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맹이관이 이성현의 후손인 정현(正玄)에게 한방에서 전해지는 비파엽탕(枇杷葉湯)의 제조 기술을 전수했다고도 했다.<sup>20)</sup>

아소누마가 남원성 전투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성현은 일본에 있어서 리노우에(李家)라는 성씨의 시조이며, 남원성 전투에서 사망한 이복남(李福男) 장군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므로 나이토의 견해에는 다소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 가니 히로아키가 확인해본 바, 그가 종자 2명과 함께 일본으로 보내진 것은 사실이나, 나이토가 증거로 들었던 『벌열록』과 『보록』에는 그 종자 2명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들에 대해 두 문헌 모두 ‘아들 또는 손자에 이르러 후손이 단절되었다(子又孫=至斷絶仕候)’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맹이관이 이들 중 한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1)</sup> 더군다나 이 설은 조선의 귀족 아들을 호위하는 무사가 왜 조선인이 아닌 중국인이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한편 아소누마는 남원성 전투에도 참가하였지만, 울산성 전투에서도 참가하여 그곳에서 전사한 왜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맹이관은 울산에서 포로가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남원에서 퇴각하면서 포로들을 억류하여 울산에 까지 이동시켰다고 보기 보다는 울산에서 잡은 포로들을 일본으로 퇴각할 때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며 그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설은 울산성 전투에서 포로가 된 자라는 설이다. 이 설은 에도 말기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에도 말기 대표적인 화가 우타가와 구니요시(歌川國芳: 1798-1861)의 「성충의사전(誠忠義士傳) 죽림정칠용중(竹林定七隆重)」이라는 목판화(錦繪=浮世繪) 작품이 있는데, 그것에 “다케바야시 다카시게(竹林隆重)는 아코(赤尾)의 구 가신인데, 그 선조가 조선정벌 때 오카노 마사모토(奥野正元)에게 생포된 다케바야시 다카(武林隆)의 후예이다”는 문장이 적혀있다. 여기서는 비록 다케바야시 다카시게(武林隆重)를 다케바야시 다카시게(竹林隆重)로, 아코(赤穂)를 아코(赤尾)로, 오카노 쇼칸(岡野將

20) 内藤寯輔(1976)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出版会 pp.758-759

21) 可兒弘明(2007), 앞의 논문 p.147

監)을 오카노 마사모토(奥野正元)로, 다케바야시 다카(武林隆)를 다케바야시 다카(竹林隆)로 잘못 표기하고는 있지만, 정유재란 때 울산에서 아사노군(淺野軍) 휘하의 오카노 야우에몬(岡野彌右衛門)에 의해 생포된 중국인 무림강을 말하고 있음은 틀림없다.<sup>22)</sup>

이러한 설명은 무림강이 병부상서 형진을 따라 명나라 장수로 조선으로 출병하여 울산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오카노 야우에몬에게 체포되어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는 『길하기』의 내용과도 일치가 된다. 더군다나 『길하기』에서는 그도 이랑자와 함께 울산에서 왜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오카노 야우에몬의 주군 아사노 요시나가(淺野幸長:1576-1613)는 두 차례나 울산 서생포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임진왜란 때이며, 두 번째가 정유재란 때의 일이다. 더군다나 조명연합군과 일전을 벌였던 것이 정유재란 때의 일이다. 그때 아사노가 이끄는 부대는 서생포에 본거지를 두고 울산으로 나가 명나라 장수 이여매(李如梅)<sup>23)</sup> 부대와 전투를 벌인 적이 있는 것이다. 아마 맹이관이 오카노에게 포로가 되었다면 바로 이 때일 것이다. 그가 자손들에게 이랑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것도 같은 장소에서 체포되어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살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애절한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해져 증손녀가 노파가 되어 이랑자의 후손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설이 가장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보았을 때 이랑자는 정유재란 때 명나라 병사로 조선에 파병되었다가 울산전투에서 같은 고향 출신 맹이관과 함께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간 중국인 남성의 도공이었다. 다시 말하여 그는 울산출신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맹이관은 처음에는 의술로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자신을 포로로 잡은 오카노(岡野)의 소개로 아사노 요시나가의 아우 아사노 나가아키라(淺野長晟:1586-1632)의 가신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인연이 되어 아사노가문의 하녀와

22) 可兒弘明(2007), 앞의 논문 p.146

23) 생몰년미상. 명나라 말기 장수. 이성량(李成梁)의 아들이자 이여송(李如松), 이여백(李如柏)의 아우. 임란 때에는 조선으로 파병된 총병(總兵) 이여송의 휘하에서 전쟁에 참가하여 1593년에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등이 지키는 평양성을 탈환을 하기도 했다. 퇴각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남하하여 같은 해 2월26일 벽제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일본군에게 패퇴하여 평양성으로 철수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부총병(副總兵)으로 승진하였고, 경리(經理) 양호(楊鎬)·총병 마귀(麻貴)의 지휘하에 좌협군(左協軍)의 대장으로서 명군 1만3006명 및 이시언(李時言) 등의 조선군을 이끌고 울산 왜성을 공략했으나 일본 원군의 공격을 받아 끝내 이기지 못하고 경주로 퇴각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결혼하여, 이름도 다케바야시 유우에몬(武林唯右衛門)으로 바꾸었고, 거주지도 히로시마로 옮긴 것 같다. 그리고 미야모토 테츠지(宮本哲治)의 연구에 의하면 그의 아내는 와타나베 가문의 딸이어서 그가 고향의 이름을 딴 다케바야시라는 성씨 이외에 자신의 성씨를 와타나베(渡辺)라 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했다.<sup>24)</sup>

그는 일본에서 결혼을 두 번 하여 전처와 후처에게서 각기 아들 1명씩 얻었다. 장남이 요이치(與市)이고, 차남이 헤우에몬(平右衛門=고토시게)이었다. 그중 차남 고토시게가 슬하에 아들 두 명을 두었는데, 장남은 와타나베 가문을 계승하여 와타나베 타다다카(渡辺尹隆)라 했고, 차남 다카시게(隆重)는 분가하여 조부가 사용했던 「다케바야시(武林)」를 자신의 성씨로 삼았다. 이랑자의 후손을 찾아서 가키노키무라를 찾았던 노파는 바로 다카시게의 딸이었던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다카시게의 형인 타다다카도 1701년 아코의 영주 아사노가 사망한 후 아우인 다카시게와 함께 오이시의 무리에 들어가 주군의 복수를 감행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부모 모두 병상에 누워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오이시가 그에게 부모의 간병을 권하여 1702년(元祿15) 8월 11일에 어쩔 수 없이 탈퇴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카시게가 할복자결한 후, 그의 형으로서 히로시마번 아사노 본가의 가신으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그때는 자신의 성씨인 와타나베에서 아우의 성씨인 다케바야시로 바꾸어 자신의 이름을 「다케바야시 간스케(武林勘助)」라 했다고 전해진다.<sup>25)</sup> 다시 말하여 그는 아우 다카시게의 대를 이었던 것이다. 역사가 가니 히로아키는 다카시게는 자식을 남기지 않고 할복 자결했다고 했다.<sup>26)</sup> 만일 그렇다면 가키노키무라에 사는 이랑자의 후손을 찾아 나선 노파는 다케바야시 간스케의 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5. 마무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울산에서 잡혀간 조선의 여성 도공 이랑자는 없었다. 그것은 울산에서 왜군의 포로가 된 명나라 병사 이랑자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었다. 그러므로 이랑자는 여성도 아니며 조선인도 아니다. 그는 절강성 항주

24) 宮本哲治(1988) 『古文書による赤穂義臣伝』 科学書院 pp.188-189

25) ウィキペディア フリー百科辞典의 「武林尹隆」 항목(2014.02 01) 참조.

26) 可児弘明(2007), 앞의 논문, p.144

무림군 출신의 중국인이다. 그는 정유재란 때 같은 고향 사람 맹이관과 함께 조선의 원군으로 출병하여 울산성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왜군의 포로가 된 자였다. 이랑자는 요시미 모토요리, 맹이관은 아사노 요시나가와 휘하 장수들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건너가 피로인으로서 살았던 것이다.

그들은 일본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이랑자는 요시미의 영지에서 본시 직업이었던 도공의 기술을 살려 등요를 짓고 그릇을 구우며 살았다. 현지여성과 결혼하여 이름도 마타우에몬이라고 바꾸었다. 그러나 슬하에는 자식이 생겨나지 않아 양자를 받아들였고, 그들에게도 자식이 없어 일찍이 대가 끊어져 현재는 그가 작업을 했던 가마터와 그의 일족들의 묘가 요시카초에 쓸쓸히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맹이관은 중국에서 익힌 의술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자신을 포로로 잡은 오카노 쇼칸의 도움을 받아 히로시마번의 의관이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식들도 무사계급의 사람이 되었다. 그도 일본여성과 결혼하여 아들 두 명을 얻었으며, 차남의 자식 2명 중 한명이 기라의 목을 벤 다케바야시 다카시게이다. 그 덕택으로 그의 후손은 일본에서도 충의를 상징하는 명문가문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처럼 울산에서 왜군들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에서 살게 된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다.

최근 하기 거주 소설가이자 도예가이기도 한 요시오카(吉岡曉藏)씨가 그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랑자의 계명인 「구아(久我)」가 17세기 하기에서 도공으로 활약한 미와케(三輪家)의 시조 아카나 구라노스케(赤穴内藏助)의 호와 일치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랑자는 곧 아카나 구라노스케라고 쓴 내용의 소설을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울산에서 왜군에게 포로가 된 이랑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질 때 이들에 대한 실체가 더욱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한 계속적인 작업이 본 연구의 앞에 놓여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石井紫郎校注(1977) 「赤穂義人録(下)」 『近世武家思想』、岩波書店、p.330
- 伊藤菊之輔(1967) 『島根の陶窯』
- 柿木村誌編纂委員会(1986) 『柿木村誌(1)』 柿木村 pp.343-345
- 柿木村教育委員会(1982) 『唐人焼窯跡発掘調査概報 -島根県鹿足郡柿木村-』 柿木村  
p.30
- 可児弘明(2006) 「研究ノート 孟二寛とその後裔」 『史学(74巻-4号)』 慶応義塾大学、  
p.101
- 可児弘明(2007) 「研究ノート 孟二寛とその後裔 <補遺>」 『史学(75巻-2,3号)』 慶応義塾  
大学、p.144
- 可児弘明(2007) 「孟二寛研究の現状と問題点」 『中央義士会会報』 中央義士会、p.3
- 内藤篤輔(1976)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の研究』 東京大出版会 pp.758-759
- 朴容寛(2004) 「石見焼・唐人焼のルーツを探る」 『レポート21: 「21世紀・地球講座」 から』  
島根県立大学、pp.203-212
- 宮本哲治(1988) 『古文書による赤穂義臣伝』 科学書院 pp.188-189

## 要 旨

This article is about the Chinese captiv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Ulsan. Eranja and Mengigwan were the troops from the Wulin, Hanzhou, Zhejia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Jeongyujaeran). But they were captured by the Japanese troops during the Ulsan battle. Each of them were captured by the different troops and lived differently in Japan. Eranja was captured by the Yoshimi Motoyori and sent to the Yoshim's domain. He used his pottery skill for the living. And he married with the local Japanese women and changed his name to Matazaemon. But he had no descendent of the family. So, he adopted a son for the family, but his adopted son also had no descendent of the family. Finally his family name would die with him. Mengigwan was captured by Yoshinaga's troops and sent to the Japan. He used his medical techniques for the living and he became an Hiroshima han's medical officer. Taking this opportunity, his sons also became samurai. His one of the son was one that killed the Takebayashi Takashige. His family became an symbol of the fidelity until now. These two persons story telling us the life of the Chinese captive in Japan.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of Korea, Ulsan, Eranja, Mengigwan, Chinese, Hazhou

투 고 : 2014. 5. 31  
1차 심사 : 2014. 6. 14  
2차 심사 : 2014. 7. 5